



지방 순환근무제 근본대책 마련 시급 지역요원 정기채용 바람직

올해 정기인사에서도 어김없이 초임 기자들의 '지방순환 근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각 지사(국)에서 근무하던 9명의 기자들이 1년6개월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일제히 본사로 복귀했지만 후임 기자들의 충원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전국지사(국)마다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사에서는 10년차 이상의 기자가 후배와 맞교대 하는 식으로 사건팀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본사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인사가 임박해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돼 회사 인사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일부 비난도 있었다. 때문에 노조에는 정확한 배치 일자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순환근무자들과 선배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순환 근무제 자체에 대한 호응도 시원치 않은 것 같다. 순환 근무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 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원치 않는 지역에 상주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기지 않고 있고 지사에서는 '어차피 일할 만 하면 본사로 올라갈 인력'으로 생각하다 보니 애착이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방순환 근무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지

방 근무 요원의 정기적 충원없이 순환 근무제로 부족한 인력을 매우려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그동안 전국부 자체적으로도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갖은 아이디어도 모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윗돌 빼내 아랫돌 꺾는 식'의 순환근무제로는 지사 인력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 어떤 조직이 적절한 인력 공급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전국 지사별로 취재 수요에 따른 적절한 인력 규모를 산출, 이에 따라 정례적으로 인력을 선발, 공급하는 인력공급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노조 집행부가 4~5월 사이 전국의 각 지사를 돌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순환근무자 외에도 지역요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순환근무가 활성화되려면 대상자들의 지사 근무에 따른 전세비 등 실질적인 복지차원의 지원과 지방 근무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의 마련 등도 뒤따라야 지방순환 근무제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 같은 현안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전국 지사 조직의 인력문제는 '순환 근무제'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사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채 순환근무제만으로 인력을 충당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순환근무제가 연합뉴스 27년사에 도입된 인사제도 가운데 의미있는 시도로서 충분히 평가받을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본사 근무자들이 입사 초기에 지사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봄으로서 본사-지사간의 고질적인 괴리감을 덜어내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 제도가 주

춷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사에 비해 고령화된 지사 조직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순환 근무제의 장점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순환 근무자 역시 고된 훈련 기간이지만 지방 분야 취재 경험을 쌓는 유일한 그리고 유익한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회사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 인력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데도 지금의 순환근무제를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없이 전국 지사 조직의 노쇠화만 부추길 뿐이다.

“연합뉴스 우의(雨衣)를 만들어 주세요”.. 노조 지방순회 강행군

노조 집행부가 4월19일 제주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사(국)를 순회했다. 이번 순회에서 빠진 부산지사는 6월25일 방문할 예정이다.

지역 사원들은 이번 순회에서 노조 집행부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도 따끔한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합뉴스라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우의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순회한 12개 지사 가운데 4곳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우의 제작에 대한 여론이 많은 것은 방송사와 일부 신문기자들의 경우 대형 사건사고나 빙 속 취재현장에서 자사의 로고가 선명한 우의를 입

고 있지만 연합뉴스는 아직까지 우의가 없어 회사의 홍보효과는 물론 연합뉴스를 잘 모르는 취재원들로부터 냉대(?)를 당하기 일쑤라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또 현행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여러곳에서 두루 나왔다. 지사와 지국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본사 전국 부장의 취재지시를 직접 받고 있는데도 인사평가 때는 지사장만을 상향 평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각 지사와 지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전환 문제도 여러 지역에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취재본부에서 근무하던 여사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연봉사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아직

도 일부 지사 근무자들은 입사가 빠른 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따라 각 지사(국)의 직원들이 연합뉴스에 대한 소속감을 좀 더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속년수가 높은 직원들부터 조속히 신분전환을 해달라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사' 또는 '지국'으로 돼 있는 명칭을 취재본부나 지역본부 등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됐다. 지사와 지국은 마치 신문 보급소나 사업본부의 뉘앙스가 있는 만큼 본부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각급 공사와 CBS 등의 경우 이미 지사나 지국 대신 지역본부 등의

명칭을 쓰고 있다.

이밖에 노조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으로는 ▲지역 주재기자들의 전세금 지원현실화 ▲지역 기자들의 광고부담 축소 ▲출장이 잦거나 거리가 먼 지역의 일일 출장비 현실화 ▲연봉사원의 수당차이 현실화 ▲지역 사진기자의 2진 체제화 ▲'연합식구의 날'(가칭) 제정 등이었다.

노조는 이번 지역 순회에서 수렴한 각종 건의사항과 본사에서 수렴 중인 의견을 취합, 조만간 있을 예정인 노사협의회와 가을에 열릴 단체협상을 통해 사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영상사업, 언제까지 헤맬 것인가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오백리무중(五百里霧中).

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상사업에 착수한지 3년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지만 영상사업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이런 말들이 적합하다.

지난해 노조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계기로 영상사업의 방향 제시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구 개편이 실시된 지도 6개월이 지났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고는 못하다는 반응이 훨씬 우세하다.

1~2년 전과 달리 지금은 조합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영상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고 영상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영상업무를 어떻게 자신의 기존 업무와 조화시킬지에 대한 혼란상은 여전하다.

영상업무담당 직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이 회사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할지 지침을 내려달라는 기본적인 요청에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전정공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勞)와 사(社)라는 양쪽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하며 한쪽만 구른다면 회사는 제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 회사의 영상사업이 바로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 팔 걷어붙인 직원들 =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상관련 부서인 영상취재부, 영상제작부에서 송고한 영상은 1천건을 넘는다.

매일 평균 고객들에게 30~40건의 영상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자체 취재, 제작한 영상 건수도 같은 기간에 영상취재부에서 346건, 영상제작부에서 157건이었다.

영상부서측에서는 이 정도의 송고분량이라면 지상파 방송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에서 스트레이트 뉴스와 뉴스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포함한 광의의 뉴스영상이 몇건이나 방영되고 있는지, 특히 외국 뉴스영상을 제외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하루만 주



의깊게 지켜본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가지 사안을 취재한답시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단 3~4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일이 사라진 대신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방송사들의 무선마이크와 함께 '연합뉴스' 로고가 붙은 무선마이크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생겼다.

각 출입처를 맡은 취재기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나 영상담당 부서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물론 지상파방송사에 판매가 되기도 했다.

28기 수습기자들도 힘든 사회부 교육 기간에 촬영에 나서며 회사의 영상콘텐츠 구축을 거들기도 했다.

◇ 하지만 여전히 난맥상 = 이처럼 영상담당 부서에서든, 취재부에서든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영상을 만들려 애쓰고 있지만 사원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

작게는 '나중에 또 다른 일을 부가적으로 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부터 크게는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뛰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가장 거시적으로 보자면 회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아직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8조 3항을 비롯해 방송관련 규제에 회사의 영상사업이 저촉되는 않는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영상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원과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나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으로 볼때는 취재현장에서 영상제작 활동에 대해 업무수칙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는 종종 분초를 다투는 취재현장에서 일처리에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업무 환경이 확실하게 조성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열의만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발생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최근 회사는 부주의하게 제작, 편집된 영상을 송고하는 바람에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경우는 사전에 예고된 공식 행사일지라도 영상저작물이 자칫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전 교육만 이뤄졌어도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동영상 취재시스템은 비정규직인 영상제작 관련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나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연합뉴스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연합뉴스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을 불안한 고용조건 때문에 놓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실무부서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안해도 경영진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뤘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 한발 앞선 매체환경 선점을 위한

3면에 계속

“VJ, 2년이 너무 짧아요”

취업을 준비하던중 연합뉴스에서 영상취재요원(VJ)을 채용한다고 지원을 해 작년 2006년 2월 1일 파견사원으로 입사하게 됐다. 현재 연합뉴스 영상 취재요원 가운데 파견사원은 영상취재부에 5명, 영상제작부에 10명이다.

우리들은 맡은 일에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취재를 나가면 “연합이 영상을 해요?”, “어! YTN이다!!”, “연합뉴스는 채널이 몇 번이에요?” 등등 신기한 듯 우리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 영상을 많이 알아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저 자신도 기쁘고, 취재 현장에서 보다 나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사원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능력있는 동료들이 저임금, 경제적 문제로 인해 5명이 2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거나 다른 매체로 옮기는 실정이다.

회사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만둔 동료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연합뉴스 영상취재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회사쪽이 손해일 것 같다.

또한 그만둔 동료를 대체한 다른 파견사원이 업무 습득이나 노하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도 손해다.

따라서 VJ(파견근로자) 근로기간을 2년 주기로 바꾸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해 숙련도, 팀웍, 충성도가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2년이라는 근로기간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영상취재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취재부 VJ 정기섭)



한미 FTA와의 다섯 달



김종수 경제부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중순쯤의 일이다.

증권부에서 하루하루 주식시장의 움직임에만 눈길을 쏟다 경제부로 발령난 당일 내게 지엄한 명령 하나가 내려왔다.

“미국 취재 비자 좀 내라” “예?”

인사 발표 당일 떨어진 새 부서장의 지시에 어리둥절해 해야했다. “갑자기 웬 취재비자야..”하는 불만과함께..

인사가 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계투요원’이 되라는 것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힘든 것은 고사하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인사로부터 2주 후 미국에서 협상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경제부장의 지상명령이었다.

나와 한미 FTA의 ‘벼락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듯 장기 레이스 중간에 뛰어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경제부 새 출입처의 현안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른바 ‘출입처 장악’은 제쳐놓고, 짬이 좀 날 때면 지난 수개월간의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정부의 자료를 읽는데 몰두해야 했다.

말그대로 ‘팬텀에 헤딩’이 된 셈이다.

협상 취재는 예상했던 대로 초장부터 고생길의 연속이었다. 4차 협상지(나의 첫 협상지)인 로키산맥 가운데 몬태나주 빅스카이까지 23시간 동안 비행기를 2번 갈아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을 해야했다.

이후 국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몸이 편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의 협상이야 좁은 곳에

간혀서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눈에 띄는 협상단을 붙들고 ‘기사 앵벌이’에 나서면 그만이지만 한국 땅에서의 협상은 협상단과 정부 고위층이 수시로 접촉하며 전략을 바꾸는 부담이 있는데다 협상단이 시내 이곳저곳을 오가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협상의 클라이맥스를 이뤘던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의 3월 말 장관급 최종 협상은 말 그대로 기자의 인내심과 체력을 시험하는 피 말리는 현장이었다.

몇 시간에 한 명 나오는 협상단 붙들기, 그리고 나름으로 아는 루트를 통해 이곳저곳 전화 돌리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긴 했지만, 내가 심야에 귀가한 뒤에도 눈에 불을 켜고 현장에서 밤을 지새울 타사 기자들을 생각하면 제대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여기사 큰 기사를 놓치면 만회할 길도 없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의 무도장에는 매일 새벽 2,3시까지 술과 춤에 취해 놀던 젊은 남녀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생길의 절정은 협상 마지막 사흘간이었다. ‘3월 말까지 협상이 안되면 사실상 결렬’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천명에도 불구하고 3월31일 밤 12시가 넘어도 협상장에서는 협상이 깨졌는지 타결됐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밤새 현장 생중계를 해대던 방송사 기자들도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고 당장 다음날 아침 신문 내용을 확정할 수 없게 된 신문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결국 다음날 이른 새벽 ‘협상을 48시간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도착한 신문들을 보니

‘한미 밤새 격론’ 등 문구에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고 강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신문 가운데는 아예 ‘타결’이라는 대형 오보를 낸 곳까지 있었다.

또다시 밤을 지새며 발표만을 기다리던 이들이 지나고 4월2일 마침내 요란하고 거창한 기자회견과 더불어 한미 FTA 협상이 막을 내렸다.

공식적으로는 10여 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이었지만 내게 한미 FTA 협상기간은 5개월이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의 요구를 더 관철해야 한다며 추가협상 내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한-유럽연합(EU) FTA도 이미 출발선을 넘어섰다. 아마도 또 다른 ‘기다림’과 ‘노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협상기간 브리핑실이나 심지어 호텔 바닥, 영업이 끝난 카페 등을 가리지 않고 새우잠을 자며 취재에의 열정과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모든 언론사의 선.후배동료에게 경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한미 FTA 자체에 대해 그리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후배를 다독이며 크게 화도 내지 않으면서 책임은 책임대로 져온 경수현 선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곳저곳에 널려있던 ‘노숙자’ 기자들이 아무리 밤이 깊어도 협상단 한 사람만 나오면 구름떼같이 모여들던 희한한 광경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을 것 같다.

☞ 2면에 이어

여 = 회사는 영상관련업무를 시작하면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취재기자들에게도 촬영장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펜이나 컴퓨터를 지급한다고 해서 기사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단순히 장비만을 지급하고 지시만 내린다고 해서 영상콘텐츠가 생산될 리는 없다.

경영진은 그동안 차세대 수익원으로서 영상사업이 중요하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고 그에 따라 사원과 조합원 사이에서도 영상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왔다.

하지만 경영진은 사업이 중요하다고만 말하면서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이런 현상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애써 시작한 영상사업은 ‘뒷심’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영상제작부와 영상취재부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거리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경제.사회 등 편집국 취재현장에 기반을 둔 영상취재부와 멀티미디어본부 내 영상제작부 간에 겹치는 영역을 어떤식으로 조율을 해야하는지도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가 단순히 새 사업분야 진출이 필요하다는 말

만하는데서 벗어나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실천을 보일 때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영상사업의 두 바퀴는 제대로 앞을 보고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박노황 외국어뉴스국장 임면동의 투표 실시

박노황(50) 워싱턴 특파원이 노조의 임면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외국어뉴스국장으로 확정됐다.

박 외국어뉴스국장 내정자는 5월29일 기자직 사원의 임면동의 투표 결과 재적인원 454명(특파원, 해외연수자, 수습사원 등 제외) 중 335명(73.8%)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았다.

박 신임 국장은 1983년 연합통신(연합뉴스 전신)에 입사한 뒤 외신2부, 사회부, 영문뉴스부 기자를 거쳐 2003년 남북관계부장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워싱턴특파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임면동의 투표 전 노조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뉴욕주재 영문특파원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어뉴스 수습기자를 매년 꾸준히 충원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어뉴스 기사를 편집국에 파견해 국문기사 작성과정을 접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천하는 노조.. 주요 사업계획 모두 '순항중'

제20대 노동조합(위원장 이봉준)이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하나씩 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합뉴스사법 연장을 위한 기반 여건 마련 등 9개 현안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 지방조직의 사기 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 ▲ 인사평가 시스템 본격 실시에 따른 대책 마련 ▲ 회사 건강 검진기관 교체 추진 ▲ 노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구축 ▲ 유명 치과와 피부과, 한의원과 조합차원의 협약 추진 ▲ 회사 동영상 취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특파원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회사 건강검진기관 교체사업의 경우 노조에서 직접 각급 유명 대학병원과 협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대학병원을 회사측에 추천했다. 이는 검진결과의 판독이 좀더 신뢰성을 가지면서 진단과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에 따라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도 생각했다. 현재 대다수의 방송과 신문 조합원들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더 협의를 거쳐 회원들이 현재의 검진기관 외에 양질의 여러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조직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거쳐 다음 노보를 통해 특집 형태로 다룰 예정이다. 다른 사업과제들도 현재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8개 집행부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쟁의부는 2년에 한차례씩 열리는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 결렬을 대비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 시작해 12월 말에 끝나는 이번 단체협약을 앞두고 과거 자료 검토등의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사측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동원 위주가 아닌 자발적인 쟁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토요일

무 및 정기 휴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회사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회사 콘도 지원 확대, 분기별 여가비 지원, 사우회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비정기적으로 발간됐던 노보를 2개월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발간키로 하고 익명게시판도 구축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간하지 않았던 노보모음집을 다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성부는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조에 별도의 성폭력 사태의 예방과 사후 조치를 담당할 특위를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차별적 경조 휴가 규정 개정을 위한 활동

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 경조 휴가의 경우 조부모상은 3일인 반면 외조부모상은 2일로 돼있다.

조사부는 인사고과제 개선안과 임금협상 관련 자료조사, 각 부서별 근로조건 개선방안 관련 자료 수집, 사내 복지시설 자료 수집, 경영진에 대한 사내 여론 조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 총무부는 내년도 인사평가시스템 적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조직부는 본사와 지사 조합원들 간 유대 강화를, 선전부는 연합뉴스사법 연장 관련 문제의식 재고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내걸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익명토론폰방 개설

몇 년간 사라졌던 익명 토론방이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union.co.kr)에 4월26일 새롭게 개설됐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등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회원들은 이 토론방에서 노조가 제시한 토론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토론을 벌일 수 있다.

토론폰방의 첫 번째 주제는 '동영상 취재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은?'이었지만 익명토론폰방이 낯설어서인지 개설 후 한 달 동안 관련 글이 댓글을 포함해 6개에 그치는 등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올려진 글 가운데는 영상 취재 사업이 비민주적으로 시작됐다고 꼬집으면서 두 개 부서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영상 취재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촬영한 지 1~2일 후 출고된 동영상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사의 경우 6개월마다 다시 계약하는 인턴 사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지방순환 근무자의 인사 문제, 노조의 참글상 선정기준, 대휴이행제 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기협 축구 '아쉬운 8강'

연합뉴스가 2007년 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아쉽게도 8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축구팀은 5월19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CBS와 대회 8강전에서 전 후반 내내 우월한 경기를 펼치고도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5로



동아일보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류지복 선수와 동료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석패, 2004년 준우승의 위업을 재달성하는데 실패했다. CBS는 지난해 4강팀이었다.

연합뉴스는 황대일 조합원의 '거미손' 활약을 앞세워 세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선방했지만 8강의 잔인한 '롤렛게임'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특히 주전 11명 중 40대가 6명에 이르는데다 부상자가 8명이나 포함된 연합뉴스는 이번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분전, 패배하고도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울지역 언론사 40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연합뉴스의 초반 스타트는 산뜻했다.

5월12일 수중전으로 치러진 1차전에서 승부차기로 디지털 타임스를 가볍게 물리친 연합뉴스는 다음날 16강에

서는 '특급 스트라이커' 류지복 조합원의 선제 결승골로 '전통의 강호' 동아일보를 1-0으로 눌렀다.

기세가 오른 연합뉴스는 이 대회 첫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듯 했으나 준준결승에서 20대로 이뤄진 CBS와 대결에서 아쉽게 저 4강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축구팀은 대회 기간 열렬한 응원을 보내 준 사내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내년 대회에는 좀더 일찍 선수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훈련을 하자"거나 "사내 실.국 축구대회를 갖자", "사회체육회 축구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자"는 등 연합축구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YTN이 차지했고 CBS는 3위에 올랐다.